

다윈은 무신론의 아버지인가?

박희주 (명지대학교 과학사 교수)

진화론은 신을 부정하는가? 올해 다윈 탄생 200 주년을 보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숙고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답변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현존 최고의 진화론자에게 물어보자. 대표적 인물로 옥스퍼드대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를 꼽을 수 있다. 도킨스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다윈이전에도 무신론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했겠지만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다윈으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그는 선언한다. 최근 도킨스를 세계적 진화론자에서 세계적 무신론자로 각인시킨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은 국내에도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도킨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무신론을 지적으로 완성시킨 이론임에 틀림없다.

이번에는 진화론문제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단체에 물어보자. 창조과학회가 금방 머리에 떠오른다. 1980년대 국내에도 소개된 창조과학은 20세기 초 미국 근본주의기독교에 뿌리를 둔 반 진화론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진화론은 신을 부정한다’고 답변한다. 상세한 답변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윈은 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답변을 듣고 싶은 인물은 이 질문에 대한 1차적 당사자인 다윈일 것이다. 진화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윈 자신은 신을 부정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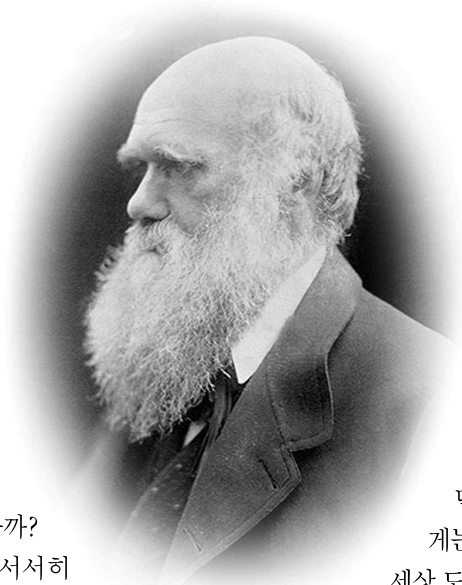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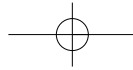
사후 100년이 훌쩍 넘어 적답을 들을 길은 없지만 남긴 글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읽을 수는 있다. 그

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의 입장이 생애를 통해 변해갔기 때문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잠시 신학공부를 하기도 했던 청년시절의 다윈은 신의 직접 창조와 기적을 글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적 기독교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50세가 되어 ‘종의 기원’을 출간할 무렵 다윈은 신이 자연법칙을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신론(理神論)으로 기운다. 신이 진화라는 법칙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명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년의 다윈은 불가지론으로 흘렀다. 이외에도 다윈의 신앙이 순간순간 상당한 진폭으로 흔들렸다는 점 역시 다윈의 종교관을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어떤 때는 자신이 유신론자로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다윈은 고백했다. 지인에게 보낸 다윈의 편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의식을 지닌 인간을 포함한 이 장엄하고 경이로운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내게 있어 신의 존재에 대한 주 논거가 됩니다(1873, 다윈이 N. D. Doedes 씨에게 보낸 편지).”

또 다른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의 경우 가장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불가지론자가 내 마음



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879, 다윈이 J. Fordyce씨에게 보낸 편지).”

종교에 회의를 갖게 한 문제들

왜 이런 신앙의 변화가 있었을까?

무엇이 다윈을 불가지론으로 서서히 기울게 했을까? 이런 신앙의 변화는 다윈 자신의 진화론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앞서 언급한 도킨스에 의하면 진화론의 점진적인 형성과 맞물려 다윈의 신앙이 점차 약화되어 결국은 불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당시의 신학사상과 다윈의 진화론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역사적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대표적 신학사상 중 하나였으며 젊은 시절 다윈도 큰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은 진화론의 일방적인 배척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윈진화론의 핵심개념인 자연선택의 형성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논증의 패턴, 생명체와 환경간의 밀접한 적응을 강조한 점, 당시 유행했던 생기론과 대비되는 수동적인 자연관 등 여러 면에서 자연신학과 자연선택 간에는 평행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다윈이 종교에 대해 회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진화론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윈으로 하여금 종교에 회의를 갖게 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편만한 고통과 고난의 존재였다. 1851년 가

장 사랑했던 큰 딸 애니의 죽음이 가져다 준 충격은 헤어내기 힘든 고통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다윈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원인모를 질병은 다윈에게는 고난 그 자체였다. 다윈은 세상 도처에 존재하는 고통, 고난과 자비로운 신 개념을 조화시키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윈의 신앙은 약화되었고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라고 다윈은 고백했다. 다윈의 신앙은 흔들렸지만 결코 신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되는 진화론

책은 저자의 손을 떠나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종의 기원』에 담긴 다윈의 진화론도 지난 150년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종교문제와 관련해 진화론은 무신론적으로도, 유신론적으로도, 혹은 무관한 것으로도 모두 해석가능하다. 하지만 다윈 본인은 진화론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화론을 둘러싼 종교논쟁이 격화하며 혹여 다윈이 무신론의 아버지로 이해되어 왔다면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에게 바른 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